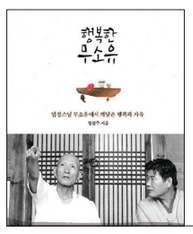
“선택한 맑은 가난 넘치는 부보다 값져”



행복한 무소유
정찬주 지음
정민 미디어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고희를 맞은 이 책의 저자 정찬주 작가는 30대 중반에 법정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가 샘터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스님의 글을 매만지던 때의 일이다. 스님은 노년에 접어든 나이인데도 그때까지 상좌를 두지 않았다. 부처님보다 이른 나이에 감히 상좌를 들일 수는 없다고 저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저자는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을 이어가다가 재가제자를 허락받았다. 스님이 정 작가에게 내린 법명은 무염(無染)이다. ‘저잣거리에 살되 물들지 말라’는 뜻이다. 저자는 스님의 산문집 10여 권을 펴냈다. 스님의 글을 매만지며 그 의미를 천착하는 일을 수십 번 반복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스님의 글을 읽고 옆에서 오래 지켜봤기에 저자만큼 그 진의를 깨달은 이도 드물 것이다. 그런 그가 법정스님 입적 11주기에 즈음해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헌정하는 산문집을 최근 출간했다. 제목은 〈행복한 무소유〉이다.

이 책에는 스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며, 사색한 저자의 온유한 글들이 가득 담겨 있다. 저자의 무소유서 깨달은 행복과 자유가 어느 사이엔가 향기로운 차를 음미하듯 읽는 이에게 천천히 스며든다.

이 책은 코르나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안한 시대에, 봄날 햇살처럼 삶의 신산한 그림자를 걷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한강 뷰 아니면 한강 물’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강한 욕구를 드러낸 말이다. 물론 과거에도 배금주의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한계선을 넘어버린 듯하다. 그렇다면 정말 소유만이 삶의 큰 행복일까? 현재 우리 사회가 법정스님이 선물하신 무소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법정 스님은 누군가 무소유의 의미를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좀 더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유보다 값지고 고귀하다.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나눔’이 없는 무소유는 허망한 주장에 불과하다.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소유를 경계하면서 나눔의 삶을 이루라고 하였다. 결국 무소유에는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 중 ‘선택한 맑은 가난’이란



법정 스님이 한때 주석했던 전남 순천 불일암 전경 모습.

제자인 저자가 스승에게 헌정한 산문집
무소유서 깨달은 삶의 행복과자유 조명
법정스님 무소유 암자 순례도 함께실어

청빈(淸貧)의 삶을 뜻한다. 풍부하게 소유하기보다는 풍요롭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수행자들의 덕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수행자나 저자 같은 재가제자를 만났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도 공(空)하고 내 것도 공(空)하다는 도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 무소유란 말을 만들어낸 것뿐이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 의미가 쉽지 않다.

저자는 산방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자연스럽게 법정스님의 ‘무소유’에 대한 뜻을 전한다. 행복이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내리는 봄비에, 잠든 세상을 깨우는 산새 소리에, 목련 꽃봉오리가 개화할 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저자가 산방에서 손님을 맞으면서, 글을 쓰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달은 삶의 의미는 소유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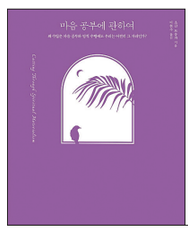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졌다. 1부에는 법정스님이 무소유라는 화두를 꺼내든 계기와 무소유를 나눔으로 승화한 이야기, 무소유 삶을 살다간 인물 이야기, 무소유의 철학적인 뿌리를 밝히는 산문 10편이 모였다. 이어 2부는 저자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명상한 글들이다. 자신의 산방에서 자연을 스승 삼아 벗 삼아 살면서 깨달은 바를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산중에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한미한 작가로서의 인생을 성찰한 이야기를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고희의 삶을 살아오면서 얽혔던 인연을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엮었다.

3부에는 저자가 ‘법정 스님의 사상과 진면목’이라는 제목으로 월간 〈불교문화〉에 게재했던 논문 형식의 글을 전재했다. 법정 스님의 사상과 가풍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조심스럽게 독자에게 전한다.

4부는 ‘법정 스님 무소유 암자 순례’ 편이다. 스님이 〈무소유〉 산문집을 펴낸 불일암, 스승인 효봉 스님으로부터 무소유 정신을 익힌 쌍계사 탑전, 말년에 무소유 삶을 보다 철저하게 사신 강원도 오대산 쯔데기골의 수류산방을 소개했다. 저자는 사진을 함께 실어 독자들이 눈으로라도 먼저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지복의 삶을 설파한 장소를 순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돈이 삶의 전부인 양 미쳐가는 세상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삶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사유해보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왜 수많은 마음공부와 수행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일까?



마음 공부에 관하여
초걈 트룽파 지음
이현주 옮김
불광 펴냄/1만 7천원

이 책은 에고가 만드는 함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근본적인 마음 공부의 본질과 그 수행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모두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질문과 대답’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이 한 번은 가졌을 의심과 의문에 대한 답을 풀어준다.

1970년, 지난 100년간의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미국 땅에 동양의 낯선 스님 한 명이 찾아왔다. 티베트에서 온 초걈 트룽파이다. 당시 미국 사회는 영적으로 매우 고양된 상태였다. 고성장서 저성장 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적 기치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동양의 정신세계서 더 깊은 삶의 의미와 전망을 찾고자 했다. 이런 시기에 미국에 정착한 초걈 트룽파는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인지를 설파했다. 그는 깨달음마저 상품화하고 소비하려는 미국 사람들의 영적 물질주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명상을 통해 곧장 영성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책은 197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카르마 드종 명상 센터에서 열린 초걈 트룽파의 강의를 묶은 것으로, 마음 공부와 영성에 관한 바른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살아 있는 고전이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더욱 심해진 물질주의 세태와 영성이 유용한 돈벌이 수단 중 하나가 된 이 시대에 전하는 날 선 가르침이다.

‘왜 수많은 마음 공부와 영적 수행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인가?’ 이 책의 부제처럼,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왜 그토록 영성이란 것이 성취하기 어려운 것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왜일까? 초걈 트룽파는 ‘에고(Ego)’가 거기에 이르는 길을 교묘히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행이란 마음의 깨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연습이다. 깨어 있는 상태가 곧 ‘깨달음’ ‘영성’이며, 그것은 본래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불교의 관점이다. 단지 에고가 만들어내는 미망에 가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내면의 영성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가리는 에고의 기술은 생각, 감정, 그리고 개념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에고는 독립적이고 고정된 ‘나’라는 신화를 만들어낸다. 생각하는 내가 ‘있고’, 감정을 느끼는 내가 ‘있고’, 세계를 인식하는 내가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렇게 에고는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리하고, 나 아닌 것 가운데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 취사선택하게 함으로써 이분법적 태도로 삶을 바라보게 한다. 나와 동떨어진 깨달음과 영성, 세상이라는 관념 또한 이런 식으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나아가 에고는 진실을 보려는 우리의 마음 공부마저 도구로 삼아 우리를 거짓 영성에 빠져들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에고가 꾸며내는 환상들을 물리치고 진짜에 가 닿을 수 있을까? 초걈 트룽파는 이 책에서 풍부한 일화와 예리한 비유로 그 답을 알려준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특별함’에 대한 추구가 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깨달음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깨달음이나 영성이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평범한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단번에 뒤집어버릴 초인적인 힘을 가진 깨달음을 상정하고 그것을 찾아 나선다. 특별한 깨달음이 생겨나면 뒤이어 그것을 얻기 위한 특별한 행위와 시도가 생겨난다. 세상과 떨어져 깊은 산중에 은거하거나, 엄격한 수행을 지속하거나, 특정한 종교적 도그마에 매달려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영성 가로 막는 큰 적은 에고가 만든 ‘나’
특별함 환상, 마음공부하며 빠지기 쉬워
“깨달음 시작, 지키고자 하는 것 잘라라”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또 하나의 함정은 한번 찾아온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명상 수련 중에 깨달음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특별한 체험으로 여겨 그 순간의 느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쓴다.

참된 깨달음은 일상적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온전히 깨어 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티베트 불교와 선불교의 가르침에서 ‘평범한 지혜’ ‘참된 평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마음 공부와 마음 수련이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과정이다.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일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은 것으로 마음을 향할 때, 우리는 삶이 주는 영감(靈感)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마음 공부는 언제나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깨달음과 마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최단 거리다.

김주일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